녹음 한 번으로 회의록 초안부터 지시사항 이행까지 — 내부 PC에서 도는 AI 회의록 도우미

쓴 AI Whisper large-v3-turbo(받아쓰기) · pyannote·3D-Speaker(화자 구분) · Gemma 4 E4B(요약·판정) · BGE-M3(검색) · Claude Code(프로그램 제작)

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?

회의가 끝나면 옆자리 동료가 녹음을 몇 번이고 되감으며 회의록을 받아 적었습니다. 지난 회의에서 나온 지시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려면 흩어진 파일을 다시 뒤져야 했습니다.

회의 내용은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워, 인터넷 AI 서비스를 그대로 쓰기도 곤란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보며 "이 일을 AI가 덜어 줄 수는 없을까?" 생각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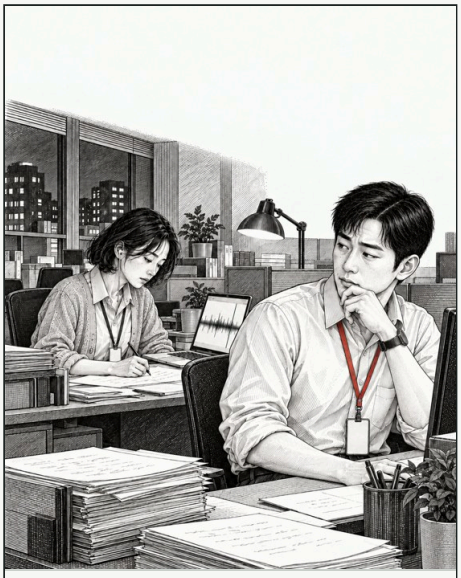


그림: 받아 적는 동료와 고민하는 나(AI 그림)

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?

인터넷에 회의 내용을 보내지 않도록, 내부 PC에서 도는 **공개 AI 모델**로 회의록 도우미 「회의톡」을 직접 만들었습니다(프로그램 제작에는 Claude Code를 썼습니다).

녹음 → **받아쓰기·화자 구분** → **용어 사전** → **발언자별 초안** → **한글 회의록 · 지시 대장** 모두 내부 PC 안

- 녹음을 올리면 로컬 AI가 받아 적고 발언자를 나눠 **발언자별 초안**을 만들고, 기관 용어 사전으로 우리 기관 말에 맞춰 바로잡습니다.
- 초안은 **기관 서식 그대로 한글(.hwpx) 회의록**으로 내려받습니다.
- 지난 회의는 **키워드로 찾고**, 누르면 원문의 그 자리로 갑니다.
- 회의마다 나온 **지시를 담당·기한과 함께** 모으고, 뒤 회의의 이행 보고 발언이 있을 때만 '완료'로 판정합니다.

측정 시연에서 실제로 걸린 시간

49초	**17초**	**7.8초**	**63건**
91초 녹음 → 발언자별 초안	초안 → 요약·결정 사항·할 일	문장 질문 → 근거 번호 붙은 답	회의 28건에서 지시 자동 정리

2026-10-25, 노트북 한 대(내부 PC)에서 회의록 28건·시연용 녹음으로 잼. 설치는 11분 23초(엔진·모델 약 6.1GB).

사용 제가 쓰는 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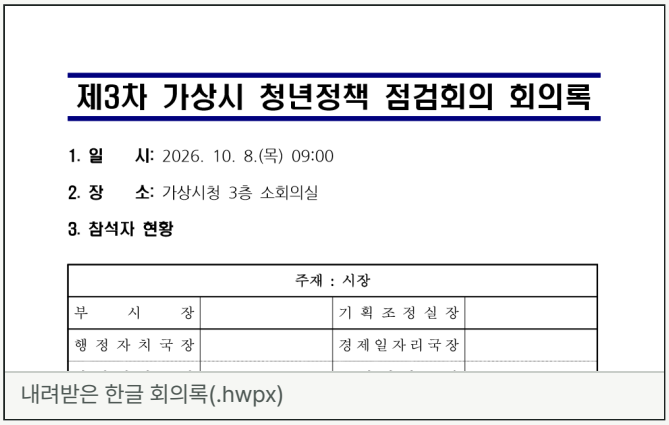
1 · **회의 끝**	2 · **초안 확인**	3 · **한글 파일**	4 · **다음 회의 전**
녹음 파일을 올림	발언자 이름·용어만 바로잡음	기관 서식 회의록 내려받기	기한 지난 지시만 모아 점검



지시사항 이행 대장 — 7. 6. 지시가 7. 20. 회의의 이행 보고 발언을 근거로 ✔ 완료



발언자별 초안



내려받은 한글 회의록(.hwpx)

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

- 동료와 저는 이제 녹음을 받아 적는 대신, AI가 만든 **초안을 확인만** 합니다. 받아 적던 시간이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.
- 지시사항은 근거 발언과 함께 한곳에 모여, 이행 여부를 회의록을 뒤지지 않고 봅니다.
- 지난 회의 내용은 키워드 하나로 찾아 원문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.

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?

- **내부 PC 안에서만 처리** —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고, 구독료가 없습니다.
- **AI가 지어내지 않게 규칙과 나눔** — 지시·기한 찾기는 규칙이, 정리·판정은 AI가 맡고, 완료에는 늘 근거 발언이 붙습니다. 최종 확인은 담당자가 합니다.
- **기관 용어 사전** — 기관 용어와 지역 말을 사전으로 바로잡아 받아 적습니다.

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?

- 공개 AI 모델만 쓰기 때문에 누구나 **내부 PC에서 같은 방식**으로 쓸 수 있습니다.
- 설치 파일 하나로 엔진과 모델을 프로그램 폴더 안에 받고, 인터넷이 막힌 PC는 오프라인 묶음으로 설치합니다.
- 언어 모델은 설정 한 줄로 더 큰 모델이나 기관 모델 서버로 바꿀 수 있습니다.

참고 한계와 보완

- 짧게 끊어 말하면 화자를 잘못 나눌 때가 있어, 구간마다 화자를 바로잡습니다.
- AI가 만든 초안과 판정은 어디까지나 초안이라, 근거 발언을 보고 담당자가 확인합니다.

한 줄 정리

받아 적던 시간이 확인하는 시간으로 — 녹음부터 지시사항 이행까지, 회의 내용은 내부 PC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.
